

코오롱인더스트리, 화학 메이저 도약

2009년 12월31일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 ... 화학·생활·산업재 고부가화

코오롱의 제조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종합화학 메이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코오롱그룹은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사업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분할해 2009년 12월31일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앞으로 화학·생활·산업소재 분야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종합화학소재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계획이다.

코오롱은 지주회사로서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비롯해 건설·환경(코오롱건설), 제약·바이오(코오롱제약, 코오롱생명과학), 무역·IT(코오롱아이넷·코오롱베니트·네오뷰코오롱)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됐다.

한편, 코오롱그룹은 1월4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그룹 통합 시무식에서 지주회사 체제 출범을 알리며 <도약 2010>을 경영지침으로 선언했다.

이와 함께 ▲속도와 질에서 획기적인 성장 ▲사업별 DNA 확보 ▲오픈 잇(Open it) 문화의 정착 3가지를 중점 실천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웅열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주회사로 새롭게 출범하는 코오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진정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2010년을 과감한 도전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코오롱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출범을 기념해 KBS 교향악단을 초청한 신년음악회 형식으로 시무식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5>